

내려놓으면 행복해지고, 끌어안으면 불행하다

덕숭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 스님



설정스님은 ... 1955년 수덕사에서 원담 진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범어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다. 그 후 수덕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총회의장을 역임하고 문경 봉암사에서 수년간 수행했으며, 상원사 청량선원, 정혜사 능인선원에서 수행 정진했다. 2009년 8월 조계종 중앙총회에서 덕숭총림 방장으로 추대됐으며, 11월에 대중사 법계 품수 동의를 받았다. 이판과 사판을 두루 아우른 이사원용의 대표적 산승이다.

이월의 하늘은 눈 시리게 푸른빛이었다. 불에와 닿는 바람은 차갑고 산색은 아직 겨울 빛깔이다. 정혜사로 가는 길은 하늘 길처럼 까마득해 보였다. 천팔십 개의 돌계단을 지나야 한다. 백팔 번 뇌를 버리고 또 버리어 열 번을 채우다 보면 정혜사 도량에 가 닿을 것이다. 덕숭산은 멀리서 보면 그 기상이 늙은 것이 거세어 보이지 않으면서 성큼 걸어 들어가 보니 얼마 품속처럼 포근하다. 흘러내리던 계곡물이 그대로 멈추어진 채 얼어붙어있고, 소나무 아래엔 채 녹지 않은 흰 눈이 쌓여 있는 아름다운 풍경은 떠나오기 전의 시공간을 있게 만든다.

정혜사로 통하는 아지형의 바위 문을 통과하자 딱따구리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적막한 숲을 흔들었다. 성(聖)과 속(俗)이 다르지 않다고 하지만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정혜사 도량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또 다른 성스러운 세계에 와 있음을 실감하였다. 창호문을 투과한 오후의 빛살은 투명했고, 그 넓은 공간을 통방을 같은 눈을 부라리며 달마 대사가 지키고 있다. 덕숭총림 방장이신 설정 스님께 나뭇이 예를 올렸다.

선객들 사이에 정혜사 선원은 방부들이기도 어렵지만 구참 스님들이 많아 공부하기도 힘들다고 소문이 나 있다. 그 어느 곳보다 정진의 열기가 뜨겁다는 말이기도 하다.

“소문이 잘못 났구먼. 어느 선방이든지 참선공부는 즐겁고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법을 깨달아 보겠다고 스스로 발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선방이고 스스로 인내하면서 극기하고 서로를 북돋아주면서 공부하는 곳이 선방입니다. 참선공부는 최단의 극기와 자제, 인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디든지 공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참선공부는 재미있는 것이 아니고 진척이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기에 ‘본래 면목을 찾겠다’는 굳건한 원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공부입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강하게 공부할 것을 주문할 뿐입니다.”

경허 스님, 만공 스님을 배출한 수덕사는 한국 선종의 일번지이며 내려오는 가풍은 공부인들에겐 날 선 지침이 된다. 선농일치라는 외형적인 가풍이 있으며, 내형적인 가풍은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를 다 막고서 공부하라는 것이다.

“안이비설신의가 바깥경계를 향해서 춤추지 않고 날뛰지 않도록 하고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목구비(耳目口鼻)를 막지 않고서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좋다 나쁘다는 것도, 시시비비도 다 놓아버리고, 부처다 조사다 그런 생각마저도 다 놓아버리고 오로지 자신을 찾는데 전념하는 것이 가풍입니다.”

오롯이 마음공부하는데만 전념하라는 것이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만든 것이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은 변하지 않기에 마음공부가 으뜸 공부인 것이다.

은사이신 원담 스님은 “해제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라. 해제란 생각결단을 해야만 해제이다. 해제날인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 생각하고 발심을 해서 새로운 결제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상좌들에게 일렀다. 설정 스님 또한 그러한 가르침을 받았기에 365일이 안겨요, 날마다 결제날인 것이다.

공부가 항상 여윌하고 순일하였는지, 힘들 때가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여쭙었다.

“참선공부는 막히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깨진 사람 외에는 모두 다 막혀있어요. 막혀있는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막히지 않았다면 출발할 수 없습니다. 은산절벽과 같이 출구가 없는 당처에서 출발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공부를 해나가면서 잘 될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지만, 공부는 원래 막힌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조사스님들의 행의체를 생각해 보고, 세상이 얼마나 무상한가를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참선하는 것이 말을 타고 달리듯 계속 달려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기에 때로는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고, 육체적인 리듬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부단하게 가는 것입니다. 단절하지 않고 물이 흘러가듯 쉬지 않고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이 참선입니다.”

선공부는 한 고비 넘기고 나면 이것만큼 맛있는 공부가 없으며,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선은 함이 없는 공부이며 선을 하는 사람은 둔(鈍) 공부를 해야 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하는 공부인 것이기 계산 빠르고 그런 사람은 선공부를 할 수 없어요. 참선공부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한 고

참선공부는 꼭 막힌 데서 시작 깨진 이 외에는 모두 막혀 있어

비 넘기고 나면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구나. 이 일을 제쳐놓고 왜 다른 일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禪)이 중생들이 당면한 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더니 한마디로 단단하게 “의심하지 말라”고 일렀다.

“불교에서 ‘성불하지’는 것은 자기 본성을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불교인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에게 무한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는 것이 불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준대로 공부한다면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아름답고 감사하고 행복한 곳으로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 법을 잘 알기만 해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요. 불교는 특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만중생에게 만생들에게 해탈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불교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 해탈하여 행복해야 하고 자유스러워

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믿고 안믿고는 중생의 근기이지만 믿지만 하면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는 것이 선입니다.”

눈이 일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하여도 눈 자체는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외부세계는 환하게 보고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내면세계는 잘 모르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 중생들이다. 누구나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선이며, 선을 통해 자기 본성을 회복하여 주인공으로 살라는 것이다.

설정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깨달음 혹은 견성’이란 어떤 것인지 여쭙었다.

“분별심이 없는 것, 양변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견성입니다. 청정한 불성은 돌이 아니고 하나인데 중생들은 분별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귀하다 천하다, 나와 너, 이렇게 갈라지고부터 모든 것이 복잡해지고 증오심과 진애심(瞋恚心)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생기는데서 윤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번견(邊見)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생사의 윤회를 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견성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견성이란 새로운 발견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없는 보배창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이며 확인하는 것입니다. 번견이 떨어지고 난 다음엔 무엇을 해도 다 괜찮아요.”

“번견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임제 선사 “만약 어떤 장소에서든지 주체적일 수 있다면 그 서는 곳은 모두 참된 곳일 것이며 어떠한 경계에서도 잘못 이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떠올려 보았다.

선가에서는 ‘왜 스스로가 깨달았다’고 하면 마구니로 몰아가는지 궁금하다고 하였다. “깨달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아니지요”라고 답했다.

“깨달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성이란 상이 없는 것이기에 깨달았다느니 깨닫지 못했다느니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은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가 드러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심성과 품성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항기를 감출 수 없듯이 깨달음의 맑은 기운 또한 감출 수가 없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간화선이 세계적인 선수행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지를 여쭙었다.

“각광받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전에 만 중생이 선(禪)속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은 모든 중생이 가야 할 길이지 불교의 길만이 아닙니다. 간화선을 세계화시키는 것은 불자들의 할 일입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넘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가치관은 혼란

내 영혼의 작은 책 시리즈

“당신과 나누고 소통하고 행복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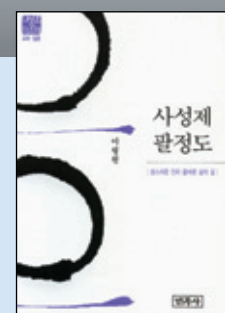
내 영혼은 깊은 사색과 명상을 통해 작은 꽃을 피운다.



Q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비행기에서,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간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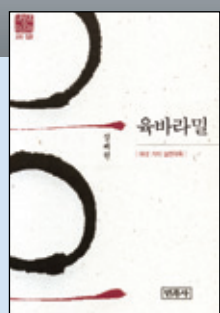
☑ 불교의 다양한 주제를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담아낸 실용적인 민족사 시리즈 책입니다.

» 교리·입문
사성제·팔정도



이필원 - 값 6,500원
성스러운 진리, 올바른 삶의 길

» 교리·입문
육바라밀



성재현 - 값 6,500원
여섯 가지 실천 덕목

» 수행·명상
생활명상



김남선 - 값 6,500원
내 마음 알기, 내 마음 치유하기

» 수행·명상
위빠사나



정준영 - 값 6,500원
번뇌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찾는다

» 수행·명상
관세음보살



김호성 - 값 6,500원
나무관세음보살, 자비 실천의 모범

» 수행·문화
아미타불



여여법사 - 값 6,500원
나무아미타불, 죽고 나서는 기억하지 마세요

» 수행·문화
사십구재



구미래 - 값 6,500원
고인을 떠나보내는 49일간의 마음 준비

쓸데없는데 쓰는 힘 아끼면 열정돼



을 겪고 있으며 온통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진단하기를 현대인의 60% 이상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요. 이 정신질환을 빠르게 고칠 수 있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은 모든 사람들이 가야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며, 불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혜의 눈이 떠지게 되면 굳이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르치게 됩니다.”

재가불자들이 좀 더 쉽게 선수행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비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여쭙었다.

“간화선에는 왕도가 없어요. 앞에서 말했지만, 간화선은 재미가 없는 공부인데 하고보면 넘기면 재미가 있어요. 선을 하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 선이 다 있습니다. 꼭 앉아야 선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 순간에도 다 할 수 있어요. 앉아서도 서서도 밥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생활 속에서 선을 하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쓸데없는데 자기 에너지를 쏟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소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정을 갖고 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선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철학은 하루를 경영하고 사상은 내일을 경영하고 종교라고 하는 특히 선은 영원을 경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자기 생명을 경영해서 행복하고 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선입니다. 영원의 농사를 짓는데 단시일에 효과를 보려고 해서 되겠어요? 차분히 한순간 한순간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자리가 잡히고 선의 참맛을 알아가게 됩니다.”

禪은 영원을 경영하는 길 끝끝내 자기 지킬 힘 얻어

스님은 고령화시대의 대안으로도 선수행을 꼽았다. 연세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삶으로 전락하지 않고 끝끝내 자기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길이 참선이란단다.

현대불교 독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가르침을 요청하였다.

“운문 선사가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라는 공

안을 남겼는데, 날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지수화풍(地水火風) 사대와 허공이라는 공(空)으로 되어있습니다. 지(地)는 인간의 오만, 수(水)는 분노, 화(火)는 탐욕, 풍(風)은 시기질투, 공(空)은 무지입니다. 중생의 삶은 이 다섯 가지를 진짜로 알고 신나게 살고 있어요. 오만을 가져본들, 분노를 일으켜 본들 탐욕을 부려본들, 그것이 무엇에 쓰일 것인가를 알지 못해서 중생이 어리석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내려놓고 살면 행복한데 이러한 것을 끌어안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일일시호일이 되도록 살아야지, 일일악시일이 되도록 살아서는 안됩니다. 부처님 법은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어요. 중생 노릇하면서 복이 오라고 하면 복이 오지 않는 것이지, 부처 노릇하면 복이 절로 옵니다.”

선의 종장이신 실정 스님께서 전하는 ‘행복한 삶을 위한 가르침’을 오토이 가슴에 새길 일이다. 딱따구리의 울음소리를 뒤로 하고서 천팔십 개의 계단을 되짚어 산을 내려왔다.



문운정 수필가(본지 객원 기자) blueyon6@hanafos.com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갈대가 자라 무릎을 꿇는다

동안거를 해제했다. 원래 안거란 비에서 나온 말이다. 인도의 불교 수행자들은 4월 15일부터 3개월 간 우기(雨季) 때에 외출할 경우 초목이나, 작은 곤충들을 모르고 밟아 해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절에 들어가서 수행에 전념했다. 이것을 우안거라고 한다. 그리고 보면 안거는 우안거의 생각된 발음을 알 수 있다. 비는 범어로 varsha라고 한다.

선종에서는 하안거·동안거라고 해서 각각 90일 동안 외출을 금지하고 오로지 좌선을 통한 수행에 전념한다. 제방의 수행자들은 안거를 마치는 날인 안거경(安居境)을 고대하고 있

그릇에 담기 마련이다. 소위 조행(操行)은 한 인간의 미래의 거울이 된다.

부처님 존상 앞에 서면 경외심이 절로 난다. 그 경외심은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다. 부처님의 머리털[髮]을 보자. 부처님이 나계선인이 되어 선정을 닦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온갖 새들이 날아 와서 머리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한다. 미동도 없이 정진에 몰두한 부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 인천(天人)의 스승이란 관복(貫祿)의 유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륜의 짙고 깊음에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본다. 단 한 시간이나 단 한 철 동안의 정진일망정 안팎이 여일한 정진이라면 품세 있

참다운 수행자에게 시간은 숫자일 뿐 깨달아 공부 마치는 날이 진정한 해제일

을 것이다. 안거경은 단순히 시간이 가리키는 약정된 날이 아니라고 본다. 참다운 수행자에게 시간이란 부질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한 일일 터이니 말이다. 수행자라면 누구나 희구하는 활연대오(豁然大悟)의 날이 공부를 마치는 날이고 진정한 해제일이라고 다짐을 거듭할 것이다.

오등록(五燈錄)은 <경덕전등록>·<광등록>·<속등록>·<연등록>·<보등록>을 이른다. <속등록> 범화제거장에 나오는 말이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여하시불(如是佛) 입니까? 범화 선사 답했다. 노아 천술(蘆芽穿膝)이다. 즉, 갈대의 싹이 자라 수행자의 무릎을 꿇는다.

이 글은 멋진 수행자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좋은 사례이다. 사람들은 흔히 일의 성과를 논할 때 운 타령을 곧잘 한다. 그 사람은 운이 좋아 일이 성사됐다 하기도 하고, 사안이 여의치 못하면 운이 좋지 않아 일이 그르쳤다고 한다. 정작 하고자 하는 일에 얼마나 혼신의 힘을 기울여 도전해 봤느냐의 물음에 ‘아뵤사!’만 연발하는 경우를 자주 듣게 된다. 이내 누군가가 구각춘풍(口角春風)으로 귀를 솔깃하게 한들 무슨 신통한 처방이 될 수 없는 일이다. 마음이 달뜬 나머지 동서남북으로 육신과 마음을 허둥거리다 한들 신통한 일이 생길 리 없다. 자업자득이라 했다. 내가 지은 행위는 내가 받는다는 가르침은 비단 업의 문제에만 국한 되지 않고 삶의 도처에 적용되고 있다. 수행에 있어서도 내가 지은 만큼 그만큼 집을 짓고 그만큼

고 내실 있는 정진이라 할 것이다. 안팎이 다르면 웬지 자신이 편하지 않고 남이 보기에도 여간 불편해 보이기 마련이다. 마음이 음침맞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표리부동하다고 한다. 상대와의 이해득실에 따라 신의를 저버릴 경우이다. 그러나 수행에서 문제는 상대가 없다. 오직 자신의 내면과의 문제일 뿐이다. 안팎의 문제는 누가 중용한 바도 없고 무슨 요술쟁이가 트릭을 쓴 것도 아니다. 지극히 자신이 짓고 자신이 맥없이 끌려가는 일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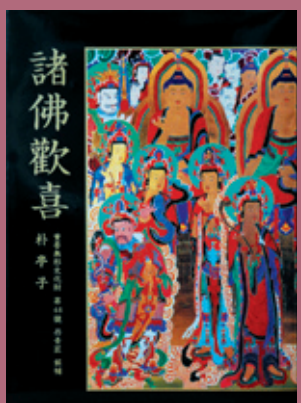


<속등록>에 나오는 정진에 몰두한 범화(法華) 선사의 눈썹에는 거미줄이 늘어져 있다. 선사의 당찬 일성에 다시 귀 기울여 보자. 이러한 선사의 일성에는 가식이 있을 수 없다. 선사의 자체에 제불보살의 환희가 넘친다. 선사의 주변에 선사의 율호가 넘친다.

남의 셋방살이에 찌들려 살면서도 고대광실을 소개하는 어느 알곳은 복덕방 영감의 삶을 애처로이 여긴다. 훗시 내 인생이 복덕방 영감이 아닌가 살펴보자. 아니라면 나는 공부를 마치고 고대광실에서 경대를 마주한 일없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문자답 해보자.

동국대 선학과 교수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불환희의

B4양장/247쪽/10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지난 19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금뿔 부모 은중경」 병풍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금어의 맥통을 이어 받았음을 입증한 박정자 선생의 사불수행 25년과 신심에서 우리나라 불보살의 작품세계를 만날 수 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 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박정자 선생님의 사불교본 시리즈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국내 최대 크기(4절) 사불 안내서

초를 전부 새로 그려 사불을 하는 모든 분들이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



사불교본(1)
탕화정초, 대부모은중경, 팔상도, 비천도
4절지/249쪽/5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영산회상도를 시작으로 부모은중경의 내용과 팔상도의 내용을 실었으며 비천도의 내용도 담고 있다.



사불교본(3) 만다라
4절지/89쪽/20,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만다라화는 연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상화하여 단청이나 불화에 문양을 넣어서 장식적인 길상의 의미로 사용한다. 약 40종의 만다라화를 담고 있다.



사불교본(2) 관세음보살, 53불도
4절지/269쪽/55,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수월관음도를 포함 관세음보살님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여러 모습으로 나타신 모습과 나무보광불에서 나무일체법상만왕불까지 53불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불교본(4) 삼신불, 팔대보살
4절지/55쪽/15,000원/한국전통문화연구원
비로자나불을 포함한 삼신불과 관세음보살로 시작되는 팔대보살의 모습을 비롯해서 화엄성중과 시왕의 모습을 사불할 수 있게 하였다.